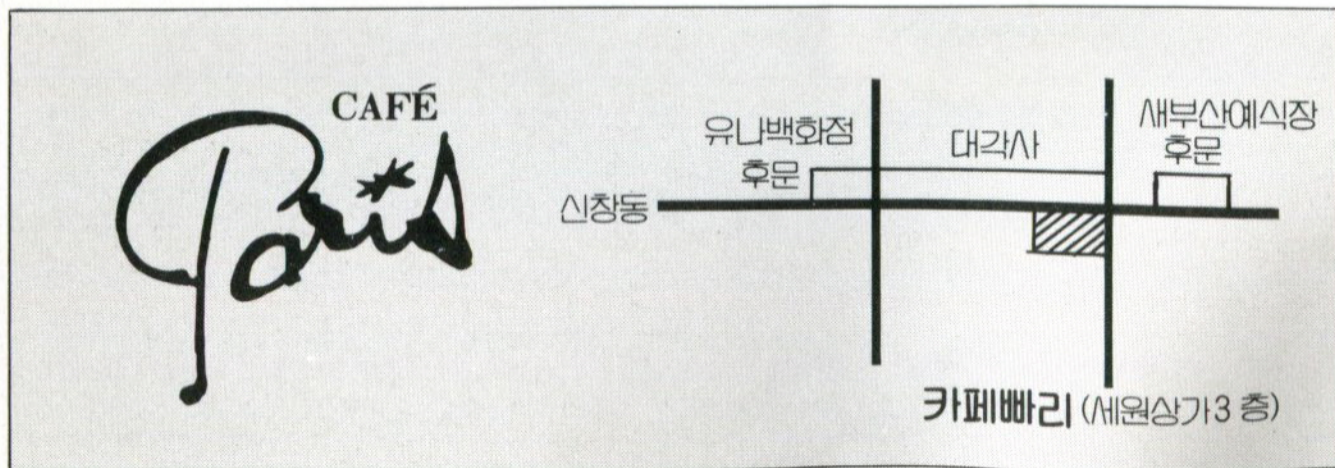


**Theatre
Works
of
Jong-Doo, Jo**



구성 /	박영민
무대감독 /	권오진
섭외 /	문찬훈
의상 /	김성옥
가면제작 /	홍순관
소품 /	박창화
노래 /	홍성모
음악 /	등소房
비디오 /	권기택
포토그래픽 /	최민혜
아트디렉트 /	김복만

'85. 12. 28⇨31 부두극장 소극장
오후4시, 7시
31일 자정 특별공연



「조종두」

— 겨울마다 만나는 아우 —

그는 나에게 좀 특별한 人物이다.

1978년 겨울 내가 연출한 「고도를 기다리며」에서 그가 보여줬던 힘과 기(氣)의 연기를 나는 지금도 잊을수가 없다.

2주간의 끈질긴 아부끝에 그는 뺏다시피 나로부터 役을 얻어냈고 처음 연극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사가 거의 없고 대신 특별한 몸짓, 특별한 Feeling을 요구하는 「LUCKY」 役을 그의 타고난 MIME 능력으로 훌륭히 소화해 냈던 것이다.

그는 그뒤 불현듯 서울로 가서 판토마임 배우가 되었으며, 이제 5년간의 승려생활이후 또다시 발표회를 갖겠다고 한다.

학교시절 그는 유별나 보이기를 좋아하는 우리 「劇會」의 소위 「YELLOW」 세대의 한사람으로써 학교에 들어온 귀여운 「스피츠」 한마리를 산채로 끓여먹는등 대담하고도 해괴한 「에피소드」를 수없이 남긴 장본인이기도 했다.

학교시절부터 몇차례의 「헤프닝」공연, 「마임」공연 등으로 우리에게 괴상한 즐거움을 안겨줬던 그가 이제는 정말로 알맹이가 있는, 또 진실한 무대를 보여줬으면 하는 마음이다.

그렇게 해야만이 그가 이제껏 창출해낸 그 수많은 인연의 늪을 헤쳐내고 새로운 기대를 우리에게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우에게 건투를.....

1985. 12. 26

극단 부두극장 대표

이성국

•작업일기

역사란

힘의 수직적 구조는 아니다.

다만,

시간의 긴띠 위에

뜨고 가라앉는 사건이 그 위에서 놀 뿐이다.

이미 기억되어진 일반화된 사건의 중요성보다는

개인의 일상적인 사건이 들쭉처럼 제풀대로

피어난다.

모두 그 속에서 섞여 시간의 긴 띠위에

서로의 풀대로 떠 논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래왔고, 그리고, 그럴 것이므로.....

•조종두

《1970년 부산 좌성국민학교 졸업,부산생》

영산 회상 (靈山回想)

1) 부 표(浮票)

구성 / 박영민

무대 후면에는 영사막 또는 환등기막이 퀘도걸이 처럼 서 있고 무대는 비어 있다. 극 전체의 흐름은 세가지 요소로 구분되어 진다.

첫째, 환등기에 의한 슬라이드.

둘째,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유행가 가락.

셋째, 무대에 놓여있는 물체(배우)

전체적으로는 여러개의 장면(환등기를 비춤에 의한 장면 전환)으로 이루어지면, 이에 걸맞는 노래가락이 흘러나온다. (한소절 정도). 그리고, 조명의 강약에 의한 배우의 움직임이 있다.

1. 개 짖는 소리 들리면 에프. 오.

멀리서 호르라기 소리(조용한 동네에 쫓는 자와 쫓기는 자가 있는듯 개소리와 호르라기 소리가 정적을 깬다)

호르라기 소리 사라지면 2 차대전 당시 일본 천황의 선전포고문소리가 들리고, 조명이 들어오면 일본 무사가 칼춤을 춘다. 암전.

환등기 영사(동학란 소재의 배경, 참수장면) 화면정지.

이때 음악(창, 한스런) 장면전환과 음악이 이어서 계속 전환된다.

창이 끝날 무렵 무대중앙에 핀조명.

무대에 자루가 놓여 있다. 큰자루속에 사람이 들어있는 듯 꿈틀거린다. 이후 계속 꿈틀거린다. 장면전환과 음악은 처음은 느리다가 해방이후 장면부터는 경쾌하고 바쁘게 전환된다.

*무대 한쪽탁자와 의자에 인물이 나타난다. 먹고 마시는 일상의 동작을 되풀이 한다.

2. 환등기 장면

① 슬라이드

구한말. 합병

일제때의 삽화

의병모습.

3·1운동

안중근의 손.

헌병.

압록강 천고.

일장기. 학도병.

웰컴 미군

엠피 소련군탱크

김구. 이승만

강통 고아 폐허

철로망.

이주열 대모대

혁명 기념사진

월남전

② 음악·효과

학도가, 창부타령

총독의 소리(노래

가사와 실재음의

교차)

(가요백년 참고)

한오백년

만세소리

서울 찬가

슈산보이

영도다리 12열차

미아리 눈물고개

월남에서 돌아온.

⋮

장면전환 되어도 빈여백으로 헛 넘어간다. 시간을 알리는 역사적 사건의 슬라이드와 지극히 개인적인 사건의 슬라이드가 섞여 보여진다.

2) 월 정(月精)

에프. 오.

멀리서 아득히 범종소리가 들려온다. 소리 사라질때쯤 단소소리 들려온다. 퀘도에 에프. 아이. 월정 제목 비친다. 에프. 오.

무대후면 중앙에 좌대가 마련되어 있고 좌대에는 높직히 반가부좌를 한 사내한명이 앉아 있다.

희미한 실루엣(단소소리가 애절하게 들려온다)

달장면 전환되면서 아라한들이 손표정을 기초로한 안무가 시작된다.

(소리, 여자의 목소리, 아주 경쾌하고 애뉘, 그러나 정감이 넘치는 소리다)

“파아란 바다와 붉은 바위가 있는 사이로 오월의 해풍이 산들거리며 불어 와서는 허리를 돌아 귀밑 머리를 간질러 놓고선 저만치 깔깔거리며 달아나 면서, 갈대잎을 마구 흔들어 놓고는 바다를 옆에두고 길을가는 남편 순정공 의 강릉 태수 부임의 긴 여정인 오후 한때입니다. 마음은 흰구름처럼 뜨고 몸은 진달래 붉은 꽃에 취해 버린것 같이 갈피를 잡을 수 없는 봄날입니다.

일행이 지나는 모습을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중에서 한 사내가 나를 뚫어 질듯 쳐다 봅니다.

사내의 이마는 반듯하고 눈은 깊이를 알 수 없는 우물을 닮은듯 서늘한 그늘을 드리우고 있습니다.

어디서 본듯한 어디서 본듯한 아! 갑자기 쓰러질 것 같습니다. 현기증이 일어납니다. 부축을 받고 나무그늘에 몸을 눕니다. 사내가 가까이 다가옵니다. 하늘과 바다를 구분할 수 없습니다. 천지는 온통 푸른 물결입니다. 넘실대는 파도에 떠오르는 진달래 붉은 꽃잎이 타오릅니다. 그 꽃은 유난히도 화사합니다. 그러나 천지 낭떠러지에 피어 내손이 닿지 않습니다. 이때, 사내가 꽃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꺾어 들었습니다. 이미 사내는 구름위에 걸려있는 꽃을 입에 문 용입니다. 날아옵니다. 그리고 손짓합니다. 불려서 오라는듯, 따라 가자고, 나는 이미 비단 날개를 가진 나비입니다. 절벽을 넘어 끝없는 바다로 나아갑니다. 황금빛 햇살로 지붕을 이루고 푸른 들녘 흰 마당에서 천년을 살았습니다. 바람이 불니다. 오월입니다. 나무 밑 그늘입니다.

가슴에는 진달래 붉은 잎만 물들었습니다.

사내는 아쉬운듯 돌아섭니다. 소를 끌고 천천히 걸어갑니다. 천년전 그날 그때같이 꿈속에 그려봅니다.

우리는 여전히 바다를 옆에 두고 길을 나아갑니다. 남편 “순정공”의 강릉 태수 부임길입니다.”

무대 조용한 가운데, 외부로 통하는 문이 열리면서 초라한 모습의 사내가 나타난다. 잠시 눈이 부신듯 주위를 살피다가 좌대의 사내를 발견하고 다가간다. 치어다 보다가 어깨를 가만히 건드린다. 반응이 없자 좀 더 세게 건드린다. 그래도 반응이 없자 발로 좌대를 걷어 찬다. 사내1 놀라서 눈을 뜬다. 끌어 내린다. 그리고선 사내2, 품에서 소주를 꺼내서 마신다. 사내1에게 권한다. 사내1 받아 마신다. 주고 받다가 술이 떨어지자 술병을 던져 버리고 나간다. 문이 열린다. 문밖에서 찬바람이 분다. 전체 에프. 오.

비디오에서 공연 끝났음을 알리는 사내1의 전화거는 모습 나오며 음악.

-암전-



THE PLAY

THE REMINISCENCE OF YŌNG SAN

Translated into English

by Junghee Chang

Junghee Chang

Dec. '85

REMINISCENCE OF YŌNG SAN

Act One

Float On

Empty stage only with a screen on the back wall like a hung bar.

This play is divided into three elements:

one is the screen by slide projector,

another is the popular songs from a tape recorder,

the third is things(actors) set on the stage.

Many screens and slides wholly compose this play, well matched

popular songs are played and performances of actors as the lights are strong and weak.

Scene 1

A dog's barking fades out.

A whistle from long distance.

(Someone is chased by someone, a dog is barking, the whistle tune breaks silence.)

The sound: Japanese Emperor declares war.

One Samurai with a Nippon sword acts fighting.